

(박홍순, 그가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하면...)

사진 속 가득히 겹쳐진 산들이 보이고, 고요한 들판과 아늑한 산이 조화를 이루며 화면을 메운다. 파헤쳐진 들이 전면에 두드러지면, 곧 풀과 나무로 덮인 산자락이 모두 파헤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한다. 정지되어 있는 듯, 고요하게 흐르는 강은 엄숙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 엄숙한 강에 거대한 못처럼 뺨죽뺨죽 철근이 솟은 다리 기둥이 박혀 있다. 완성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다리 기둥은 아름답지도 기운차지도 않다. 미완성의 구조물, 자연을 훼손하는 인공구조물의 위상만을 드러낸다.

1999년의 『백두대간』과 2005년 『한강』에서 박홍순이 보여준 사진들이다. 사진들을 통해 얘기가 터져 나온다. 좋은 얘기는 아니다. 대놓고 하다 보면 열불 나기 십상인 얘기다. 그냥 슬쩍 고개를 돌리고 싶다. 그런데도 사진은 자꾸 말을 건넨다. 할 수 없이 '그래도 저런 짓을 통해 뭔가 편리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라며 핑계를 대고 싶다. '백두대간', '한강'이라는 가슴 벅찬 단어는 결국 학대 받는 우리 땅에 대한 방어적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그가 2006년 개인전 『꿈의 궁전』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대 로망을 꿈꾸는가?"라고 물으며, 싸구려 소설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숨어드는 모텔을 핀 홀 카메라로 담아냈다. 국토를 바라보건, 그 위에 서 있는 짝퉁 건물과 가짜 사랑을 바라보건 박홍순의 시각은 한결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보는 사람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 부정적인 면이 사라지면 좋지 않겠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우리의 아름다움, 희망, 사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숨기고 불평을 토로했었다.

(그러면 지금 『파라다이스 인 서울』에서는....)

작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어두움이 사라졌다. 짝퉁 건물을 숨겨주는 흐릿함도 없다. 선명하고 쾌청하다. 사진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분다. 강물을 배경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버들가지가 멋지게 휘날린다. 푸르고 맑은 강물이 출렁거린다. 여기가 정말 한강이야? 하고 물어야 마땅하다. 늘 보는 광경이지만 사진 속의 한강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질푸른 초록의 나무, 청명한 하늘과 맑은 물빛은 거의 비현실적이다. 강을 따라 산책로가 뚝뚝 있다. 정돈이 잘 된 테니스 코트도 있다. 넓고 깔끔하다. 놀이기구가 여기저기 늘어선 놀이터에는 깨끗한 모래가 깔려있다. 넘어지면 폭신하게 받쳐줄 것만 같다. 한강 개발에 정말 애를 쓴 흔적도 보이고, 제대로 잘 한 것 같다. 그리고 남산도 보인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사진이다. 하지만 남산 타워를 중심으로 일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주변은 흐릿하다. 자세히 보면 남산 타워가 보이고, 교회의 십자가도 보이고, 이슬람 사원도 보인다. 산중턱의 다닥다닥 붙은 주택들과 전면의 아파트가 대조를 이룬다. 모든 것이 공존한다. 과거와 현재도 공존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반목의 극치를 달리는 기독교와 이슬람까지도 함께 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 서 있다. '서울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편견 없이 모든 것이 공존한다니까요.'하고 외친다.

작가는 이제 긍정적인 것, 아름다움만 보여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한강은 또 얼마나 멋진 곳인지 그 동안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 모두 이제 감탄하라고 외치는 듯싶다.

하지만 왠지 미심쩍다. 작가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다. 작가의 어법에 속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속 이야기를 찾는다. 작가가 교회와 이슬람 사원을 보여주면서 공존을 느끼라고 하는 것일까? 글썸다. 언덕 위의 주택과 전면의 아파트가 과거와 현재의 공존일까? 혹 재개발을 떠올리라는 의도는 아닐까? 그랬더니 보인다. 우리가 서울 속의 파라다이스, 잠시만 눈을 돌리면 어느 곳이나 있는 서울의 파라다이스를 못 본 줄 알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못 본 우리가 잘못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가려 깜빡 속았다. 작가는 여전히 예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한강변은 물이 넘치고 다시 빠지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강변이 아니다. 개발의 산물이다. 그곳에 가면 보기 좋은 시설들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 언뜻 보기는 하겠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사진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다. 모두 텅 비어있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한 흔적도 없이 깔끔히 정리된 텅 빈 테니스 코트, 아무도 없는 산책로. 사람은 고사하고 서울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흔해빠진 비둘기 한 마리도 없는 파라다이스가 무슨 파라다이스란 말인가?

파라다이스의 달콤한 향기를 날리는 버드나무 뒤에 아파트 숲이 작게 투덜댄다. '파라다이스가 있으면 뭘 하나, 건물의 숲에서 허덕이며 사는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인걸'

그러면 그렇지, 할 말이 많은 작가가 조용히 있을 리가 없다. 터져 나오던 이야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조는 분명 달라졌다. 전에는 대놓고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더니, 살짝 마음을 바꾸었다.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달래며 나지막이 속삭인다. 서울에 있는 파라다이스를 보라고. 그러면서 은밀히 속내를 내보인다. 현실과는 거리가 머니 진짜 파라다이스 아니냐고. 평범한 대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냈으니 그게 파라다이스 아니겠냐고.

(그러니 이젠...)

작가의 끊임없는 속살거림에는 고개만 잠시 끄덕이자. 작가의 반어법은 그냥 내버려 두자. 가슴이 확 뚫릴 것 같은 선명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아름다움에 그냥 빠져있다고 뭐 잘못 되겠는가. 진짜가 아닌 아름다움이면 어떤가. 어쨌든 아름다움은 현실을 잊게 만들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은가. 그러니 지금은 작가가 내보이는 『파라다이스 인 서울』의 매력에 빠져보자.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어조로 나올까 기대해보면서.